

칼빈의 사상에서 섭리와 자유의지의 양립 가능성 문제

송동민 (기독교철학 석사 수료)(대학원 1-3)

논문초록

이 논문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섭리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칼빈의 관점을 차례로 논구한 후,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그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칼빈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는 섭리와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악에 대한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주제어: 존 칼빈, 섭리, 자유의지, 도덕적 악, 양립 가능성

I. 서론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 전에 작정해 놓으셨다고 가르쳐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에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지의 경륜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한다.¹⁾ 이는 곧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이시라면, 과연 사람들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의 경향에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한다.(1.16.6)²⁾ 달리 말해, 그는 “인간이 그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께 어떤 일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한이 귀속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 곧 자신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목적이다. 우리는 먼저 칼빈이 섭리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 그가 이해하는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II.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칼빈의 이해

1. 섭리의 본질

칼빈의 섭리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의 말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지배자와 통치자로 믿는데, 그는 가장 먼 영원의 끝자락으로부터 자신의 지혜로 친히 행하시려고 하는 바를 작정하셨고, 지금은 자신의 권능으로 친히 작정하신 바를 수행하고 계신다.(1.16.8) ...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권능으로 붙드시며 그의 권세와 뜻에 의해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1.17.11)

1)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ter 3, art. 1.

2) 이 논문에서 위와 같이 표기될 경우, 괄호 안의 숫자는 존 칼빈의 기독교강요 1559년 판의 권, 장, 절을 의미한다. 1.16.6의 경우 기독교강요 1권 16장 6절을 가리킨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긴밀하게 관여하며 다스리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운동력을 제공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양육하며 돌보신다.”(1.16.1)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말처럼 단순히 ‘최초의 동인’(first agent)이 되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의 명확하고 의도적인 뜻에 따라 행하신다. 칼빈은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피조물 안에는 결코 어떤 불규칙적인 능력이나 행동, 운동이 없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의하여 통치되기 때문에, 그가 아시거나 의도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 이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1.16.3)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심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처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신다. 칼빈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맹목적이고 애매모호한 운동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일을 지도하시며, 그 일들을 그 자신의 목적대로 배치하신다.(1.16.4) 하나님은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스리는 데에 유의하시며, 모든 일이 그분의 정해진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곧 그분의 섭리는 영원히 작정되어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 전부터 예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신다.”(1.17.13)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무시간적인 영원한 현재 가운데 존재하신다. “만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앞에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에는 미래나 과거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이다.”(3.21.5) 또한 사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곧 영원 전부터 그것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의 예지(foreknowledge)는 그분의 작정에 근거한다.(3.23.6)³⁾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으로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모두가 섭리를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버지다운 자비하심과 사랑, 혹은 심판의 엄격함이 종종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1.17.1) 칼빈은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시다는 점을 강조한다.(1.16.3) 또 하나님의 섭리로부터는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1.17.2)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운행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에 따르면, 무생물들은 각기 그 고유한 본성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손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에 있어서만 비로소 그 자체

3) “하나님의 손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자신의 능력과 예지가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John Calvin,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ed. Paul Helm and trans. Keith Goad (Wheaton: Crossway, 2010), 75.

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1.16.2) 그 무생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존재하며, 그분의 목적을 따라 쓰임받는 도구들이다. 칼빈은 자연의 변화가 그 정해진 법칙과 원인들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설명이 거기에만 그친다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호의나 심판은 간과되고 말 것이다.”(1.16.5)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어떤 법칙을 세워 주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법칙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그저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의 뜻대로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를 결정하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매개체와 반대가 되게 작용한다.”(1.17.1)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제1원인”인 동시에, 제2원인들에게도 적절한 위치가 부여된다.(1.17.6) 예를 들어,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무하여 기도를 이루도록 힘을 주시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시지 않는다.”(3.20.5)

그의 표현에 따르면, “비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결코 내리지 않는다.”(1.16.5) 칼빈은 풍년과 흉년, 기근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증거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생물들을 그분의 뜻대로 먹이시며 돌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와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표현이다.

또한 그 섭리는 특별히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칼빈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없다.(1.16.6) 사람의 눈에 우연하게 여겨지는 사건들도 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에 따르면, “하늘과 땅, 그리고 무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의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져서 그 정해진 목적을 향해 곧장 진행된다.”(1.16.8)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의 계획과 의지, 노력과 능력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억제된다.(1.17.6)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 철학의 인과적 결정론⁴⁾과는 다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비록 그것이 전혀 일어날 만한 조건이 없고 또 그 성격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1.16.9) 칼빈은 그리스도의 뼈를 이 주장에 대한 예로 든다. 그리스도의 뼈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뼈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얼마든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뼈는 부러질 수 없었다(요 19:33, 36).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물리적인 의미의 인과적 필연성과는 구별되는 또다른 논리적 필연성을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신적인 작정에 의한 필연성’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3.23.8)

칼빈은 자신의 섭리론에 대한 반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에 대하여 논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 구절(창 6:6)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구절(삼상 15:11)이 그 예들이다. 칼빈에 따르면, “이러한 구절들은 ...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1.17.12) 또

4) 케리 왓슨에 따르면, 결정론은 “모든 사건과 사태가 선행하는 사건과 사태에 의하여 ‘인과적으로 필연성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케리 왓슨, 『자유의지와 결정론』, 최용철 역 (서울: 서광사, 1990), 13.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중 일부가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을 때,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결정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구절이 대표적인 예이다(욘 3:4, 10). 칼빈에 따르면, 이러한 구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으로 인간들의 사건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다만 각자의 공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식에 따라 매년, 매일, 매시간 이렇게, 혹은 저렇게 결정하신다”고 주장하게 했다.

하지만 칼빈은 이 구절들이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표현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성경의 묘사 역시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부감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노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칼빈은 설명한다.(1.17.13) 요나서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후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고와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실현되는 것이다.

2. 운명론과 우연

운명론(fatalism)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가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하게 된다. 리처드 테일러에 따르면, 운명론자는 “자신이 미래에 대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⁵⁾ 그는 내년이나 내일, 또는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이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치 과거가 이미 고정불변의 사실로 남아 있듯이, 미래 역시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건은 우리가 그 사건을 피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간에 발생하게 된다.

신학적인 의미의 운명론은 신 또는 신들의 존재와 본성으로부터 사태의 필연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이라’(Moirai)라는 여신을 통해 ‘운명’이라는 존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여신은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신적인 사물의 질서에 기꺼이 순응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규정했으며, 한 사람의 운명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점술을 받아들였다. 초기 스토아 철학자였던 크리시푸스(Chrysippus)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운명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며, 운명은 곧 “존재하는 사물들의 끊임없는 인과적 사슬”을 의미한다.⁶⁾ 칼빈은 “스토아주의자들이 규정한 ‘운명’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원인들의 미로

5) Richard Taylor, "Fatalism,"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1, No. 1 (Jan., 1962), 56-66.

6) Josiah B. Gould Jr., "Chrysippus,"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ition), Donald M. Borchert (ed.), 2:252.

속에서 생겨나는 필연성으로서, 하나님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⁷⁾

우연(chance)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에서는 ‘티케’(tychē)라는 단어가 우연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티케’는 우연한 사건들, 곧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헬레니즘 시대에 그 단어는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제멋대로인 우연’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⁸⁾

칼빈은 섭리에 대하여 논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이나 우연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뚜렷하게 주장한다. 칼빈이 보기에 운명론과 우연은 모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적을 실제로 부정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칼빈에게 운명과 우연은 모두 변덕스럽고 어떠한 질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냉혹한 운명도 아니고, 아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우연도 아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지배된다.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다고 여기는 일들도, 사실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만난 경우나 배가 폭풍을 만난 경우와 같이 우연해 보이는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의 가장 정당한 원인”이며,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이러한 활동들[혼란스러운 일들]을 가장 질서정연하게 조절하고 통제하셔서, 올바른 목적으로 인도하신다.”(1.17.1)

칼빈은 만약 “인간이 그저 하늘이나 공기, 땅, 그리고 물과 같은 것들의 움직임 가운데 내맡겨졌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1.16.3) 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힘이 잔인한 운명이나 비인격적인 우연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공정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냉혹한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향한 선한 보호와 돌봄의 손길이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16.3).⁹⁾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며, 그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1.17.11)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우연한 것으로 보이는가? “모든 일이 확실한 경륜에 따라 그의 계획에 의해 작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서 그것이 우연인 것으로 보인다.”(1.16.9) 그에 따르면, 그것은 실제로 우연 또는 운명이 세계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의 질서와 이유, 목적과 필연성”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에 따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에 있다.

7) John Calvin,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62.

8) Gábor Betegh, "moira / Anankē / Tychē,"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ition), Donald M. Borchert (ed.), 6:319.

9)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2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2001), 32-37.

3. 섭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을 만드신 분이요 우주를 조성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못한다.(1.17.2)

곧,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참된 인식과 이해는 그분을 향한 바른 신앙에서 나온다. 칼빈은 우리가 온전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뜻이 우리에게 의의 유일한 규범과 모든 일의 참되고 올바른 원인이 되어야 한다.”(1.17.2)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방법과 수단들을 성실하게 활용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것을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1.17.4) 곧 우리는 2차적인 원인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원천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위험을 당하게 될 때마다 종종 느끼게 되는 ‘억제되지 않는, 그리고 미신적인 두려움’을 도저히 바꾸거나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1.16.3)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1.17.9)

III.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

칼빈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자유를 지배한다.

하나님은 원하실 때마다 그의 섭리를 위한 길을 만드셔서 사람들의 의지를 심지어 외부적인 일 때까지 기울게 하시고 돌리게 하시며, 또한 인간의 의지는 비록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의 자유를 지배한다.(2.4.7)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긴 했지만, 의지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천성적으로 선택과 의지를 갖고 있다.”¹⁰⁾ 중세 스콜라 학자들은 자유를 세 종류로 구분했다. 곧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들은 이중 첫번째 자유는 인간의 본성

10) John Calvin, “자유와 논박”, 『칼뱅 작품 선집 (V)』,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286.

에 속하는 것이므로 결코 잃어버릴 수 없지만, 나머지 두 자유는 죄로 인해 사라졌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필연성을 강압(compulsion)과 혼동한 점만 제외하고” 이 구분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2.5.6)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의 의지가 외적인 강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간의 의지는 강압에서 자유하지만, 죄와 비참함에서는 자유하지 않다. 칼빈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원죄에 빠진 채로 태어난다. 원죄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다.(2.1.8) 그 본성의 부패는 모든 인류를 사로잡아 필연적으로 죄악된 행위들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자유 의지만이 남아 있다. 그것은 곧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악하게 행동할 자유”이다.(2.2.7)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오직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자유는 결코 ‘자유’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어거스틴과는 달리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를 반대한다.(2.2.8)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인간 의지에 자발적인 선택 능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태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구원론의 맥락에서 ‘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올바른 이성으로 선을 분별하며, 그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한 후에는 그것을 따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2.2.26) 이 ‘자유의지’는 앞서 스콜라 학자들이 정의한 세 가지 의미의 자유 중 뒤의 두 가지 항목들인 ‘죄로부터의 자유’와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이 ‘자유의지’를 부정한다고 말할 때에도 그는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의 자유의지, 곧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시인과 거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추구하는 것과 저항하는 것 등의 행동 능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오직 “헛된 것을 시인하고 완전한 선을 거부하며,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추구하고 의에 저항한다.”(2.5.14) 곧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자발적인 의지가 있긴 하지만, 타락의 영향으로 이 의지의 본성은 악하게 변질되어 오직 악한 것들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뿐이다. 이제 인간의 의지에는 자발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노예의지’라고 부른다.

칼빈이 섭리에 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인간 안에 어떤 운동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에 심어진 본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자신의 행동들을 조정한다”(1.16.4)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의 경향에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움직인다”(1.16.6)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논박했던 구절들에서 그는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칼빈은 인간의 행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칼빈의 말이 인간의 행동 자체가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라면, 곧 인간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이 그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마치 돌이나 물과 같은 무생물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칼빈이 섭리에 관해 논하면서 신자들에게 하

는 모든 충고들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우리가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준비하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1.17.4) 또한 칼빈은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은 바보는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2.5.14) 또 그는 “사람의 행동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제거되지는 않는다. … 의지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것이며, 올바르게 의지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고 한 어거스틴의 말을 지지한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인간의 의지는 본성에 속한 것으로 타락 후에도 소멸되지 않았으며, 그 고유한 특성은 바로 ‘강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강압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다. 칼빈은 “2차적인 피조물들은 단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원하는 대로 돌려서 그가 명한 것이 효력을 갖도록 이끄신다”고 말한다.¹¹⁾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단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본성을 존중하시며, 그 본성에 따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을 돌이나 나무조각처럼 사용하신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주신 천성에 따라 그들을 이성적 피조물로서 사용하신다.”¹²⁾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결코 강압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효력을 갖는 방식,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람의 의지를 다스리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신다는 명제와 (2) 사람의 의지는 강압으로부터 자유하며, 돌과 같은 무생물과는 달리 그 고유한 본성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명제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와 같은 통치가 어떤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성(1.16.3)과 그분의 은밀한 활동(1.16.9)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를 은밀하게 자극하고 움직이셔서 자신이 뜻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하신다.(2.4.7)

곧 칼빈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를 결정하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매개체와 반대가 되게 작용한다(1.17.1). 하나님을 만물의 제1원인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제2원인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에서 제2원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들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섭리와 자유의지가 양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효로 돌리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우리가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준비하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그의 뜻에 순복하게 된다. … 주님은 생명 그 자체를 보존하시려는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신중하

11) John Calvin, “자유와 논박”, 282.

12) John Calvin, “자유와 논박”, 283.

13)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만물을 그분이 뜻하시는 목적대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의지가 만물의 제1원인이 된다.” John Calvin, "Brief Reply in refutation of the calumnies of a certain worthless person,"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 trans. J.K.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333.

게 생각하고 경계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다.”(1.17.4) 이 구절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경건한 자가 무분별하거나 태만하여 어떤 손실을 입는다면 그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의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역시 그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다.”(1.17.9)

IV. 결론

위와 같이 우리는 칼빈 사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칼빈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적인 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주장하며, 사람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 역시 그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그 통제는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그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신다.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을 존중하시면서도 어떻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실현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참 고 문 헌

-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기독교강요』.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7.
- _____, *The Bondage and Liberation of the Will*. Grand Rapids: Baker, 1996.
- _____,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ed. Paul Helm, trans. Keith Goad. Wheaton: Crossway, 2010.
- _____, “자유파 논박”, 『칼뱅 작품 선집 (V)』.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 _____, “Brief reply in refutation of the calumnies of a certain worthless person,”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 trans. J.K.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1.
- Paul Helm, *John Calvin's Idea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Calvin at the Cent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하나님의 섭리』. 이승구 역. 서울: IVP, 2004.
- Richard Taylor, “Fatalism,”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1, No. 1 (Jan., 1962), 56–66.
- Josiah B. Gould Jr., “Chrysippus,”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ition). ed. Donald M. Borchert. 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2006. 2:252.
- Gábor Betegh, “moira / Anankē / Tyc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ition), ed. Donald M. Borchert. 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2006. 6:319.
- 게리 왓슨, 『자유지와 결정론』, 최용철 역 (서울: 서광사, 1990)